

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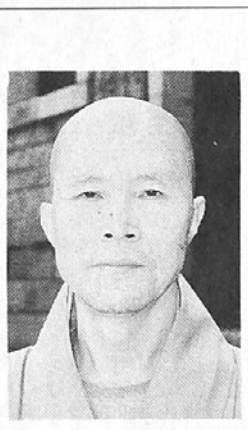
화합 없으면 발전도 없다

오늘날의 국제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정치와 경제, 과학분야에 걸쳐 나날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변화추세에 맞춰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선진국가의 발돋움을 위해 내놓은 처방안이 '세계화'다. 세계화는 구조한 요란하게 내세우고 각종 제도를 틀에 맞춰 바꾼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정부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강압적으로 강요한다고 해서 세계화가 앞당겨지는 것도 아닐 것이다. 국민들이 단합하고 일치된 마음으로 세계화의 주인이 되겠다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나라는 국제관계에서 확고한 지위와 위상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가나 진보대 보수세력으로 이분화하려는 경향이 있다면 시급히 인식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보수는 보수 나름의 제도권 논리가 있으므로 급격한 변화의 지향에서 오는 위험성을 경계하는데 일조하고 있고 진보는 정체와 안주를 타파함으로써 새로운 발전을 제시하는데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던 것이 인간의 역사적 흐름이었다. 지혜를 살린 노력으로 내세우고 있는 불교계는 이점을 깊이 인식해 어떻게 하는 것이 불교를 바로 정립하고 교세신장의 지름길인가를 잘 모색해야 한다.

미래를 책임지는 약

불교는 또한 자비의 종교다. 자비는 사람과 관용을 모두 포용하는 불교의 근본이념이며 실천덕목이다. UN에서는 율해를 관용의 해로 정할 만큼 이부분에 대한 지구인의 인식도는 깊은 편이다. 부처님은 재세 당시 회



동 광 (도산사 주지)

우리 불교계 역시 김영삼정부의 출현이후 자기변신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전국민들의 눈과 귀가 집중된 가운데 우리 불교계는 미래불교에 걸맞은 몸체를 갖기위해 본의 아닌 시련과 내홍을 겪기도 했다. 이 결과로 불교진흥과 교세신장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적지않은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현재의 총무원장 원주스님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는 거듭나는 불교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보여주고 있고 개혁총단의 임무수행에 충실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집행부 구성원은 과거에 보기 드물게 박사스님을 비롯해 각 분야에서 능력있고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짜여져 불자들의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불자들의 단합된 힘이 한곳으로 모아지지 않으면 불교의 개혁과 세계화 속의 불교역할은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이다. 불교계에는 현재 정

당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쌓은 인사라면 비록 정치적 노선을 달리 한다 하더라도 과감히 발탁해 기용하는 것도 불교발전에도움이 된다는 생각이다. 사부대중을 역시 문종과 지역에 따라 스스로 '내편 내편' 하는 편가르기 식의 어리석은 일은 더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모두 '불제자'다. 법우애가 있어야 하고 '화합정신'을 발휘해야 그 간 빈번하게 일어났던 불교계 내분이 사그라들 것이다.

빨리 꺼야 할 갈등 불씨

이런 불사들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꼭 이루어야 할, 불자들과 중단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교계의 주요 현안이 희망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 불자들은 별로 많지 않은 듯하다. 아직까지 구원(舊怨)이 남아 있고 갈등의 여과가 미진하게나마 남아 있는 듯한 교계의 분위기다. 무엇보다 징계스님들에 대한 사면문제와 관련 교계가 또 한번의 혼란을 치르지 않을까 걱정하는 우리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아직까지 일부에서는 불교계를 진보대 보수, 개혁대 반개혁구도로 나누어 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불교는 '4부대중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애초 부처님은 교진여 등의 제자들을 맞아들이고 교단을 구성했다. 중(衆)은 '무리'라는 뜻인데 그렇기 때문에 '화합'이라는 의미가 더 가깝게 사용된다. 화합하지 않으면 불교내부의 문제는 해결되기 난망하다. 지금도 사부대중을 개혁대 반개혁으로 보

앞으로 불교계는 상당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스스로 자기변신을 꾀해야 할 분야도 적지않게 있다.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는 각종 첨단과학의 기기들은 이제 실생활 깊숙히 파고들어 우리생활의 일부가 되고 있고 이를 통한 문화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불교가 여기에 만족하고 안주한다면 미래사회에서의 불교는 골품종교로 밖에 여겨질 수 없을 것이다. 미래의 첨단과학시대에도 불교가 시대를 선도하고 새로운 문화를 주도하며 인류에게 위대한 사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역시 2천5백년전 부처님이 설파하신 자비와 화합과 실수를 실천하는 길밖에 없다. 자비와 화합과 실수는 오늘날의 불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며 미래를 책임지는 묘약이라는 점을 널리 인식하자.

'佛心나무' 강산 푸르게 불교자원봉사연 식목행사

깊은산 울창한 숲사이로 울려 퍼지는 메아리소리는 언제 들어도 반갑기만한 생활의 활력소다. 마음의 텅밭에 불심(佛心)을 심듯이 우리들의 실천이 되는 나무를 심자.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는 국토푸르게가꾸기 운동 제1차 사업으로 한강상류인 여주지역에 오는 4월2일 나무를 심기위해 출발한다. 이번 나무심기행사는 산림녹화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동참할 수 있으며 식목수 목아 박물관과 여주 신록사도 함께 방문할 예정이다. (02)723-6258

이웃의 고통 함께 나눠 자비의 전화 상담원 교육

가정문제, 신앙문제, 이성문제 등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으로 많은 고민들과 만나게 된다.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이웃의 고통과 어려움에 귀 기울여진 실천 삶의 동반자로서 함께 하는 삶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자비의 전화(회장 정덕)에서는 제1기 카운슬러 대학을 열고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기다린다. 오는 4월3일부터 매주 월·수·금요일 자비의 전화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이 교육은 상담원활동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02)737-7378

깨달음의 사회화성금

- ▲마곡사 2백21만5천원
▲화영진 고영희불자 12만원
▲익명의 스님 1천만원
▲익명의 불자 1천만원
(2월 8~18일)
*성금모금 계좌번호
농협053-01-22778
국민은행023-01-0533-563
예금주:(불교중앙교연)

신행수첩



◇경기도 여주군 봉미산 기슭에 자리한 신록사는 반짝이는 은모래와 유유했던 여강의 흐름속에 천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신세대에 민족애시를 여불려, 개량한복 발표회

우리나라 고유한 멋과 전통이 살아 숨쉬는 각종 전통한복이 신세대들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온다. 한복인문운동을 적극 전개해 오던 한국여성불교연합회(회장 김묘주)는 4월13일 오후1시부터 3시까지 동방프라자 분수대 앞(남대문)에서 '자연생활한복 발표회'를 갖는다. 우리 민족의 슬기와 얼이 가득 담긴 전통한복을 때와 장소에 구분없이 잘 어울리면서도 간편하게 입을 수 있는 생활복으로 개량하여 선보이는 이번 발표회에서는 전통한복이 갖고있는 깊은 의미와 유래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남녀노소를 총망라한 개량한복이 전시되는 이날 발표회의 모든 수익금은 '정신대 위령탑' 건립기금으로 쓰일 예정이어서 한층 의미를 깊게 한다. (02)738-5586

농자와 마음의 대화 연화복지학원 수확강좌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회에서 늘 외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다수의 불행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지 않는

게임들이 다채롭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다양한하고 알찬 불교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잊혀져가는 밝은 웃음을 되찾아 따뜻하게 보아주. (02)934-1748

불교운동앞장 서동석씨 화제로 가족일어 어려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우리불자(佛子)들은 모두가 인연법에 따른 형제자매다. 그런 불자들의 한사람으로 그동안 민권연의장으로 불교인 권위 장기수대책위원장, 한국제가 회의 간사장등을 역임하며 활동해온 서동석씨의 집이 지난 20일 연쇄방화로 보이는 불에

'맑고 향기롭게' 운동본부 현대불교 공동캠페인

새봄... 맑고 향기로운 숲 만들기

새봄을 맞아 현대불교신선사와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본부는 맑고 향기로운 숲 만들기 운동을 펼칩니다. 4월 한달간 계속될 이 운동은 각 가정과 직장에서의 나무심기와 화단 가꾸기, 고아원 양로원을 사회복지시설에 맑고 향기로운 숲을 만들어 주는 행사를 펼칩니다.

맑고 향기로운 숲 만들기

- ▲일시: 4월 23일 ▲장소: 파주 관음 대비 양로원
▲참가금: 2만원(목욕, 교통, 식대포함)
꽃씨 나누기
이 운동에 동참하시는 분에게는 꽃씨를 우송해 드리고 나머지 성금은 각 학교, 사회복지시설에 꽃씨를 보내는데 사용됩니다.
▲꽃씨 종류: 붓꽃, 꽃창포, 인추리 ▲참가금: 1만원
연꽃 스티커 무료 배포
스티커를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 사찰에서는 소정의 발송비 부담만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발송비: 1백장 이하 5천원
1백장~5백장 1만원
5백장~1천장 2만원
▲연락처: (02)741-4696(맑고 향기롭게 운동본부)

'95 신 행 캠페인

참다운 불자가 됩시다

서울 백상향 신경정신과원장은 며칠전 모하원 이사장 살해사건의 범인이 대학교수인 큰아들로 밝혀지자 "불교에 가는 인간성의 권인이 가정에 있다"며 "특히 살해범이 종교에 귀의한 신앙인이라는데 충격을 감출수 없으며 가정에서의 올바른 신앙활동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가정은 사회구성의 최소단위다. 따라서 불자는 가정을 '불

금주의 주제

가정을 도량으로

바른신행으로 행복의 복밭 일궈야 불법생활화된 가족은 화합·기쁨 넘쳐

법을 실천하는 도량으로 삼아야 한다. 불자들은 흔히들 '도량'을 '사찰'로 생각하곤 한다. 사찰에 가야만 기도하고 참회하는 것으로 알고있는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처처(處處)가 정토라며 어느곳에 있더라도 보살행을 실천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생활하는 가정은 참으로 복된 가정이다. 온가족이 다함께 기도하며 다함께 불심을 쌓아간다면 그 가정은 언제나 화합과

기쁨과 경사로 넘칠 것이다. 가정에서의 수행에는 일정한 형식을 갖춘 수행과 일상생활에서 하게 되는 수행 등 두가지로 나눌수 있다. 일정한 형식을 갖춘 수행이란 염불, 독경, 참선, 참회, 기도 등을 들 수 있다. 형식없이 일상생활에서 하게 되는 수행으로는 자비, 보시, 인욕등이 있다. 매주 일요일이면 인근 사찰을 참배하는 부산 대평동 이호준어린이(국교 6) 가정은 얼마전 부산 불교방송이 생기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다. 늦잠꾸러기 호준이가 매일 아침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라디오를 켜고 식구들을 깨운다. 5시 30분 부터 라디오에 붙어 동참하기 위해서다. 예쁜 가족모두가 "오늘도 이웃에게 기쁨을 주도록 하겠습니다"는 발원으로 끝낸다. 호준이가 혹은 일찍 일어나게 되자 아침시간을 많이 활용하게 되었고 골목안 청소등을 통해 가족들의 화목을 도모하고 있다. 물론 가정을 도량으로 하기 위해서는 온가족이 불자가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힘들고, 사람으로 태어나서도 불법을 만나기 어렵다고 했다. 진정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들을 부처님 품안으로 이끌어야 한다. 이보다 큰 유산은 없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가정을 도량으로' 만드는 실천행'을 펼쳐보자.

1995 삼화불교대학 통신생 모집안내

1 모집학과 및 안내

Table with 5 columns: 학과, 수업연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Rows include 불교학과, 유아교육과, 중국어과, 불교미술과, 신문방송과.

2 학교연혁

- 1989. 7. 3 학교설립공고
90. 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90. 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 8 본교 학생 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증 취득
91. 3 전문부 주간·야간 2년제 개설
91. 8 본교 학생 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1. 8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92. 2 제1회 졸업생 배출
92. 7 국가인정유아교사 2급 119명 자격 취득
92. 8 본교 학생 29명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3. 2 제2회 졸업생 배출 유아교육과 95% 취업
93. 3 불교미술과·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 8 본교 학생 42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4. 2 제3회 졸업생 배출
95. 2 국가 인정 2급 보육교사 자격 49명 취득
95. 2 제4회 졸업생 배출
95. 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3 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법사자격증· 불교유아포교사 2급 자격증 수여
● 성적우수자 본대학 포교원· 유아원 개설시 재정지원
●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 가능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95년 4월 7일까지
●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미술과는 작품 1점 제출)

5 원서교부 문의처

본교: 511-1080, 511-2026~8 조계사 앞 삼보원: 732-9904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 바람. (511-2026-8, 511-1080)

주소: 우편번호 135-120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11-5, 팩스: 511-1080

삼 화 불 교 대 학

*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 각과 주간생 약간명 모집